

농촌진흥청, 추석 출하 과일 안정 생산 기술지원 박차

- 이승돈 청장, 충남 천안 추석 출하 배 재배 현장 방문
- 생산 현황·출하 동향 살펴…현장 의견 듣고, 기술지원 방안 모색

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8일 오후,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 있는 배 생산·유통 영농조합법인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, 올해 배 생산 현황과 출하 동향을 살폈다.

이날 방문한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12명이 총 재배면적 45헥타르(ha)에서 연간 약 1,700톤의 배를 생산하고 있다. 이 가운데 30%는 추석 명절에 출하하고, 나머지는 저장 후 연중 공급하고 있다.

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7~8월 과실 비대 및 성숙기에 발생한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으로 인해 과수 농가의 고충이 매우 컸다며,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.

이어 고품질 배 생산 맞춤형 기술지원을 한층 강화하고,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품종 개발·보급에 속도를 높ی겠다고 전했다. 또한, 과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적기 수확 지침(매뉴얼)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보급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.

이 청장은 배나무 노후화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특정 품종 편중으로 병해충에 취약, 출하 시기 쏠림 같은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, 최신 과일 소비 경향 등을 반영한 재배품종 다양화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.

이 청장은 “‘신고’ 품종에 편중(85.4%)된 국내 배 재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‘설원’, ‘슈퍼골드’, ‘그린시스’ 등 맛과 크기가 차별화된 녹색 계열 배 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.”라며 “명절 대목 중심의 소비 구조를 연중 소비로 바꾸면 지속 가능한 배 산업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이후 이 청장은 천안배원예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선과장, 선별·포장 시설, 수확 후 관리 시설 등을 살펴보고 센터 관계자와 저장 및 수출 배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 수요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.

이 청장은 ‘시에이(CA) 컨테이너를 활용한 장거리 선박 수출 기술’ 등 농촌진흥청이 연구·개발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실무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.

붙임. 충남 천안 배 주산단지 영농 현장 방문 일정표

담당 부서	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	책임자	과 장	장기창 (063-238-0970)
		담당자	지도사	김정우 (063-238-0987)
농촌진흥청에서 연구·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				

□ 방문 개요

- 목 적: 추석 출하를 앞둔 배 재배 농가 현장 방문을 통한 기상재해 대응 및 안정 생산 기술 점검, 농업 현장 의견 청취
- 일 시: 2026. 9. 8.(화) 15:00~16:15
- 장 소: 안양골 영농조합법인(천안시 서북구 성환읍)
- 참석자: 농진청, 지자체(충청남도, 천안시), 유관 기관 등

□ 세부 일정

시 간	분	내 용	비 고
15:00~15:30	30	• 배 생육 상황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* 배 열과 피해 및 재배 기술 등	기술보급과장
15:30~15:45	15	• 이 동(안양골 → 천안배원예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) *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	
15:45~16:15	30	• 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방문 * 공동선별, 수확 후 관리, 유통 등	천안배원예농협 APC 본부장